

 금융위원회	보도 해 명			• 혁신금융 • 포용금융 • 신뢰금융
	보도	배포 후 즉시	배포	
책 임 자	금융위 금융혁신과장 송 현 도(02-2100-2530)	담 당 자	서 승 리 사무관 (02-2100-2536)	

**제 목 : P2P금융의 기관투자를 중금리 신용대출에만 허용하는
방향으로 검토하고 있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.
(이데일리 12.4일자 보도에 대한 설명)**

1. 기사내용

- 이데일리는 '19.12.4. 「“부동산 대출 과도해”...P2P 기관투자 ‘중금리 신용대출’에만 허용」 제하의 기사에서,
 - “금융당국이 최근 정식 금융업으로 인정받은 P2P 대출(개인 간 대출) 업체의 자기 자금 대출과 기관 투자를 중(中)금리 신용 대출에만 허용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.” 라고 보도하였습니다.

2. 동 보도내용에 대한 금융위의 입장

- P2P 부동산대출과 신용대출 간 균형 있는 성장을 위해 대출 상품 간 기관투자자의 투자한도를 차등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으나,
 - 신용대출에만 허용할 계획은 없으니 보도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	 출처표시	본 자료를 인용 보도할 경우 출처를 표기해 주십시오. http://www.fsc.go.kr	금융위원회 대 변 인 prfsc@korea.kr	 넓게 듣겠습니다  바르게 알려겠습니다
--	---	---	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	--

“혁신금융, 더 많은 기회 함께하는 성장”